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찾아오시는 길 3호선 공단역 앞

신천대로 주차빌딩 여성회관

3호선공단역

칠곡 팔달교 성서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진료시간

평일 : 08:00~16:30
토요일 : 08:00~11:30

1호선 환승 [명덕역] ⇒ 3호선 [공단역]
2호선 환승 [청라언덕역] ⇒ 3호선 [공단역]

527, 708, 719, 724, 726, 730, 750,
200, 250, 251-1, 300, 북구1, 북구4, 칠곡2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대구북구] 전화예약 053)350-9000

의료광고심의필 : 제201028-증-113187호

푸른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제1,150호

세무사 정수득 공인증개사 사무소
대표 정수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증개
매물항상접수, 공동증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 · 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휴트니스클럽
미과 SP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턱구센터
본관 053) 593-9990~7
신관, 골프장&스크린골프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 · 요가 · 필라테스 · 스피닝 무료수강!
**100% 참나무
사우나 웰스 참숯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스크린
300대 주차장 완비!
585-0100
대실역 2번 출구 미백마트 맞편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편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면 654-7824 수성면 794-7824 북구면 355-7824
논현 611-7824 홍은면 639-7824 남면 473-7824

12월 22일, 달서구민의 날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 달서구민 의견 반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60만 달서구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을 새로운 달서구민의 날로 정하고 22일 선포식을 가졌다.

달서구민의 날은 출범 당시 14개 행정동, 인구 50만명 돌파일 등의 의미를 담아 10월 14일로 운영해 왔으나,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지난 7월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가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몰랐으며,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달서구 비상의 의미를 담아 구민의 날을 새롭게 지정하자는 의견이 68%였다. 또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된 12월 22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68%로 나타났다.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은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달서구민의 대화합 및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



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민의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로 진행됐으며, 동영상 제작 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민의 단합된 힘으로 신청사를 유치했다. 구민의 날 변경을 통해 60만 달서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상징인 신청사 유치과정을 귀감으로 삼고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달서구,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달서구(구청장 이대훈)와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달서구와 달성군은 각각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달서구의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엘로카펫' 설치와 달성군의 안심 꽃길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달서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룬 성과다.

달서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을 2억 2천만 원 증액한 14억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확대,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지원, 청소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농공님 마을가꾸기' 영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93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16일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22곳(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4개)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변점식 기자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WINTER, 2020

겨울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1년 2월 27일(토)

/ 접수기간 11월 2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053) 565-0877~8
서재점 053) 624-0500



New Class 새롭게 만나는 시간! 신규강좌

<p>프랑스 자수 수 10:30~12:00 10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구리아 대한유럽자수협회대표</p>	<p>3D펜 창의융합지도자 금 10:30~12:0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3D펜, 재료비, 자격증응시료, 자격증비용 포함 민진아 전문강사</p>	<p>아프리카 전통악기 엄지피아노 칼림바 목 14:00 ~ 14:50 (소수정예6명) 120,000원 / 재료비 10,000원 ※악기 상담 후 구입요망 (첫시간 악기대여 가능) 왕신애 한국칼림바협회 대구2지사장</p>
<p>팡야팡야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화, 물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p>	<p>팡야팡야 음악줄넘기 토 13:00~13:50 (6~7세) 토 14:00~14:50 (8세이상)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운동화, 줄넘기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p>	<p>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금 16:00~16:50 (7세~초등) 10회 75,000원 / 재료비 45,000원 민진아 전문강사</p>

지역

달서구, 보건복지부 '2020 복지행정상' 5관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복지행정상'에서 총 5개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

달서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와 장애인정책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 총 5,250만 원의 포상금을 획득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민관협력 및 자원연

계 분야에서는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 대상을 수상해 한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달서서랑365운동을 통한 기부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자원총량 확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복지파트너 및 복지법인 등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을 체계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설치와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 창구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한

예방 및 해소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달서 웨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확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활성화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주거·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안전한 도시 '달성'

6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개 분야 1등급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어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5일 공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6개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달성군은 4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에 1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왔는데, 달성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4개 분야 이

상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는데, 이로써 달성군이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받았던 범죄 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2017년에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보안등 설치 및 무인안심택배사업 등의 범죄 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오 군수는 "달성군이 대외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



밤거리 밝히는 로고젝터 3곳 설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스마트 LED 조명장치, 로고젝터를 달성스포츠피크, 달성군민체육센터, 달성군민체육관등 3개소에 설치했다.

로고젝터(Logojector)란 LED 조명장치로 각종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 등 다양한 장소에 경각심 문구 및 이미지를 투영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개념 홍보영상 장치다. <자료제공: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광고는 해야하는데
1인당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용통성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사성**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소평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기장,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달서구, 병무청장상 수상

‘제7회 사회복무대상’ 전국 우수 복무관리기관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병무청 주관 ‘제7회 사회복무대상’에서 지역 최초로 전국 우수 복무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병무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대상’은 매년 중앙 병무청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관리 기관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7회째다.

달서구에는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3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데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다. 다수의 지원인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복무관리를 바탕으

로 매년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상등급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왔다.

달서구에서는 일반행정, 환경보호

· 감시지원,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세심

한 배려와 가족과 같은 복무지도를

통하여 복무부실을 ZERO화 달성

과 힐링영화제 및 특별후기권장 실

시, 복무부적응 등 고충해결을 위한

복무고충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의신장과 우

수한 복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민을 위해 봉사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행정서비스현장 평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20년 대구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평가는 이행기준, 이행실천, 교육·홍보, 역량 분야로 구성된 이행실적 4개 분야 항목으로 평가했다.

달성군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2020년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계획’을 수립해 행정서비스현장을 제·개정 하였으며, 직원교육·홍보·



겨울철 대실역 ‘별빛폭포’ 운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달구벌대로 대실역 벽천폭포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폭포 상단부에 사슴, 토끼, 원형구, 선물상자 등을 설치했고, 겨울철 가동이 중단된 폭포를 대신해 벽면에 스노우풀 조명을 설치하여 물이 떨어지는 듯한 별빛폭포를 연출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로·진학 실무협의회 구성, 행복나눔 안부문기, 장난감 도서관 운영,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설치,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군민 간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장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문오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성군 2년 연속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선정

설화명곡역 일원 ‘디자인 간판 거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서 달성군 화원읍 국도 5호선 주변 ‘설화명곡역 일원’을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화명곡역 일변 간판개선 사업’은 달성군 관문 지역인 화원IC 진입로에서 천내천까지 1.4km, 건물 61개 동 및 112여 업소가 사업 구간에 해당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 주민의 고충을 조

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7월 대상지 주민에게 사업계획안 내후 주민 동의서를 받고 8월 행정안전부 1차 서류 평가 및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예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고, 11월 주민 참여 국민 디자인단 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디자인된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달

성 이미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내년 상반기에 간

판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반



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해 타 지역 방문객이 들르는 달성군의 주요 관문도로를 정비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간

판개선사업 구간을 계속 발굴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스마트 그늘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달성군, 주요 교차로 3곳 시범 설치

달성군 주요 교차로에 있는

여름철 스마트 그늘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변신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달성군은 겨울철에 단혀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활용해 크리스마스 장식과 LED 문구가 들어간 트리를 설치했

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 트리는 교통량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고려해 3개소(화원읍사무소, 옥포 대성베르힐아파트 앞, 대실역 2번 출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트리 조명은 일몰 후 점등되어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따옥따옥’ 따오기 보러 우포늪으로 오세요~

늘어진 왕버들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동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름새벽도 아름답지만 우포늪은 겨울철 철새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어 소개한다. 우포늪 안에 따오기 복원센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야생의 따오기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었다. 우포늪을 자주 방문하지만 야생상태의 따오기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오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지만 중국에서 한 쌍을 데려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수백 마리로 복원한 후 작년에 80마리를 방사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사라진지 40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40마리씩 두 차례에 걸쳐 방사한 것이다. 복원센터 근처 탐방로를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서너 마리의 커다란 새가 날아가기에 심심히 봤더니 머리가 붉은 색인데다 굽어진 부리 모양이 영락없는 따오기였다. 따오기가 방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기자는 흥분해서 같이 간 일행에게 분명히 생김새가 따오기인데 어떻게 야생에 있을 수 있나면서 호들갑을 놨었다. 부랴부랴 검색해 보니 작년에 80마리를 방사했고 복원센터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했다.

“따옥따옥 따오기 높에서 울고~♪” 신이 나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오빠생각’을 패러디해서 부르니 “순옥순옥 수노기 옆에서 울제~♪”라며 기자와의 이름으로 라임까지 맞춰가며 일행이 놀란다. 기자처럼 야생의 따오기를 직접 만나는 행운이 없더라도 복원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면 따오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우포늪은 우포 외에도 목포, 사지포, 쪽지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코스를 잘못 선택하면 철새는 구경도 못하고 고생만 할 수 있다. 기자가 좋아하는 사지포 제방은 규모는 작지만 다른 곳에 비해 철새들이 많고(사지포에 머물고 않은지 늘 개체수가 많다)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망원경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서순옥 객원기자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 ‘내 고장 알기 텔방’을 위한 협약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호연)는 1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과 달성군 거주 다문화가족의 지역관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관광상품권 전달로 대체됐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달성군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문화가족 총 841명(320명)에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상품 이용권은 호텔·제주·낙동강레포츠밸리 이용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문화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달성군 관내 관광지를 체험하며 달성군에 거주하는 것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달서 · 달성



달서구체육회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사단법인 대구시달서구체육회(회장 윤영호)는 18일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구도시철도 기관사들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호)는 16일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를 찾아 쌀, 김치, 라면 등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허세호)는 16일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달서구 통우연합회, 사랑의 라면 전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통우연합회(회장 김성미)는 16일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진태현 · 박시은 연예인 부부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진태현 · 박시은 부부 연예인
이 15일 (재)달서인재육성장
학재단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현풍읍 기부천사 후원 성금 기탁

현풍읍에 거주하고 있는 박재일 씨는 15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 성금 22만 2,220원을 기탁했다.



대구기독교봉사단, 백미등 3천만 원 상당 기탁
(사)대구기독교봉사단(이사장 이상민)은 18일 달 성군청을 방문하여 백미(20kg) 300포, 김치(5kg) 300개, 연탄 3,300장 등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성품 기탁
고령로타리클럽(회장 양기섭)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매일영농조합(대표 윤재도)에서 500만 원, 인터켐코리아(대표 이주천)에서 1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다산면 삼호침구(대표 박종순)에서 이불 30개, 사문진 스크린골프에서 이불 50개를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고령군운영위원회(회장 이대원)는 14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15일에는 성산면 소재 쟁반제작업체인 대성산업(대표 김상수) 100만 원, 대성지오텍(대표 제길은희)에서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개진면 소재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대운오토모티브(대표 조성철)에서 여성용품 100박스(320만 원 상당), 린글로벌테크(대표 박승철)에서 손소독제 5000개(2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운수면 최영수 명예면장
성금 500만 원 기탁

고령군 운수면 명예면장 최영수(주식회사 크래티체인 대표이사)는 17일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중화리 출향인사 김종호 씨, 성금 100만 원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출향인사 김종호 씨가 14일 대가야읍사무소(읍장 김진수)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다사읍 박곡리 이상용 씨 단배추 기부
다사읍 박곡리 이상용 씨는 13일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단배추) 1만 5천 포기를 기부했다.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성금 200만 원 기탁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이사장 김정태)은 16일 다산면에 사랑의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쌍면면 이춘언 씨 사랑의 쌀 기탁

고령군 쌍면면 용2리에 거주하는 이춘언 씨가 18일 옥미 22포(20kg) 130만 원 상당)를 쌍면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덕곡면 새마을회 '사랑의 성금' 기탁

고령군 덕곡면 새마을회(회장 최석훈, 부녀회장 진묘덕)는 18일 덕곡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쌍면면, 사랑의 성금 기탁

고령군 쌍면면 이장협의회에서는 17일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前 쌍면면 노인회 촌무 황선계 씨도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성산면, 연이은 후원 릴레이

성산면 소재 대야기업(대표 강문희)은 14일 성산면사무소를 방문,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또 성산면 적십자협의회(회장 이상희) 일동은 17일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고령초 71회 동기회, 사랑의 성금

고령초등학교 71회 동기회 회원 일동(회장 정한철)은 15일 대가야읍사무소(읍장 김진수)를 방문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의료기 손삼수 씨 현물기탁

성주의료기 대표 손삼수 씨는 17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손소독제 100개와 KF94마스크 5,000장(시가 6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성주군여성예비군 사랑의 이불 전달

성주군여성예비군(회장 김경분)은 17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불 40채(320만 원상당)을 전달했다.

성주효병원장례식장 성금 200만 원 기탁

성주효병원장례식장(대표 김태승)은 17일 성주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읍이장상특회 성금 100만 원 기탁

성주읍이장상특회는 17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광고 박용진 대표 성금

성주광고 대표 박용진 씨는 16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군 개나리회 성금 100만 원 기탁

성주군 개나리회(회장 김이숙)에서는 17일 성주군을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재미를 담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I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농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a.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선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시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시는 외면 받는다.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김직들이 둥쳤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미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이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실험하고/전해주는 '이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여신 강립이란? 어른들은 말한다. 열여덟.. 존재 자체 만으로도 빙반반씩 빛나는 나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존재 만으로는 절대 빛날 수 없다. 열평에 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못생겼다는 이유로 웅파를 당한 한 소녀. 주경이 있다. 주경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메이크업이란 마법!을 통해 여신으로 변신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빛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밀려진 담보 승이.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 시청방법
메뉴 → VOD 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소리도없이
악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 범이 되다. 범죄 조직의 허물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윤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얹기로 떠맡게 된다.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빛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밀려진 담보 승이.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령군, '국도비공모사업' 역대 최대 성과

670억 원 확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완성발판 마련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2020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총 41건, 국·도비 670억 원을 포함해 1,069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2019년(국·도비 336억 원) 대비 2배 많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군은 올해 국도비 공모 사업 선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 역량강화 워크숍과 특강을 실시했으며, 매년 정부공모사업의 대상사업과 선정방식 등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특히 곽용환 군수는 국·도

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현

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노력했고, 전 지원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먼저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군 민체육관 건립사업 130억 원(국도비 49억 원), 다산건강 기관센터 조성사업 121억 원(국도비 53억 원), 농촌 신활 력플러스사업 70억 원(국도비 49억 원), 쌍림면 기초생활자 협조성 40억 원(국도비 28억 원), 오사1리 새뜰마을사업

20억 원(국도비 16.6억 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대가야 후면화유수사업·낙동강 체육성지원 10억 원(국도비 6.2억 원), 2021년 농촌지원복합사업화 사업 18억 원(국도비 10억 원),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8.7억 원(국도비 3.4억 원), 귀농귀촌유지지원사업 2.7억 원(국도비 1.8억 원), 고방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 160억 원(국도비 104억 원),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90억 원(국도비 9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0억 원(52억 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 원

(국도비 8억 원), 다목적IOT 연구개발지원사업 2.2억 원(국도비 2.2억 원) 등이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면서 "내년에도 군의 재정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I ♥ 대야 고령'을 완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고령군 최우수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6일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부상으로 7,500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대상은 △에너지분야 교육·홍보 △에너지절약사업 △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효율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에너지

△에너지절약 점검·단속 △ 절약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원(2020년 30억, 2021년 29억)을 투입해 태양광 483개소, 태양열 82개소, 지열 59개소, 태양광 5~6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어 고령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정해광 고령군새마을회장 '대통령표창'



고령군새마을회장 정해광 씨(개진면 옥산리)가 새마을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정해광 고령군새마을회장은 2006년 옥산리새마을지도자를 처음으로 새마을활동을 시작해 2015년부터 새마을회장을 맡으면서 관내 60여 가구의 독거노인 및 생계곤란 어르신들께 반찬제공은 물론 안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또, 농악병의 잔류 농약이 하천과 논두렁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폐농약병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150여 개里에 폐농약병 수집함과 읍·면별 자원활용 배가립시설 설치를 위해 힘썼다.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1만평 규모의 사과농장을 1,280여 명의 새마을가족들과 공동으로 운영, 8,3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 고령군새마을회 재정 자립에 기여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최우수'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우수'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0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기업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추진실적,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시책참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했다.

올해 고령군은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131개 업체에 713억,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154개 기업에 442억을 융자추천했다. 특히 고령군은

최초 고령사랑상품권 모바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청사도서관 리모델링은 2019년도 생활SOC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이 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할

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입주대상 업종에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업주 지원을 위한 △고령사랑 상품권 역대 최대액 발행 및 할인행사 △대구경북

여성훈 신입 군 상록회장을 선정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성주군, 2020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0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주군은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며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별고을 통틀어 이동 빨래방 운영, 베스승강장 화단 조성 등 정비, 숨은 자원 모으기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며, 특히 새마을회 방역기동대 결성, 면마스크 제작 참여, 친환경 등장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운동 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준 새마을회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성주군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보행약자를 위한 성주군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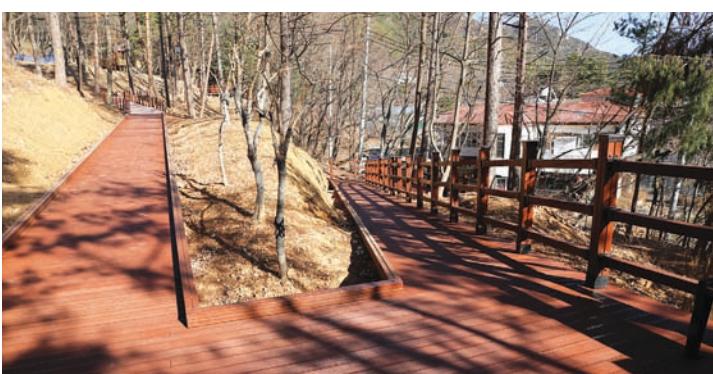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수륜면 백운리의 가야산야생화 식물원과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을 잇는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완료했다.

'장애가 없는 길'을 뜻하는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8%), 계단과 데를 제거하여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

가야산무장애나눔길은 2020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에 공모선정되어 목재 데크길 250m, 황토포장길 50m 등 길이 300여m에 폭 1.8m로 조성됐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사회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신치유와 정서안정을 통한 녹색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 최우수기관상 수상

2020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교)는 17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0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기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아 성주 농업인의 위상을 높였다.

최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기술센터는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참외 신품종 개발, 참외보와 틈새작물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개소 및 농기계 자동세척장 설치, 지역 농·특신물 가공·창업지원, 농업인교육장 시설개선 및 귀농귀촌정보센터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서성교 소장은 "내년에는 성주참외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성주형 스마트팜, 참외고설배드, 스마트팜, 소경운 피트모스 배지 활용 양액재배, 성주형 틈새작물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개소 및 농기계 자동세척장 설치, 지역 농·특신물 가공·창업지원, 농업인교육장 시설개선 및 귀농귀촌정보센터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서성교 소장은 "내년에는 성주참외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성주형 스마트팜, 참외고설배드, 스마트팜, 소경운 피트모스 배지 활용 양액재배, 성주형 틈새작물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개소 및 농기계 자동세척장 설치, 지역 농·특신물 가공·창업지원, 농업인교육장 시설개선 및 귀농귀촌정보센터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치매안심센터 2020년 치매극복 우수기관

성주군은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한 '2020년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치매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사례 평가는 경상북도 25개 치매안심센터(41개 사례)를 대상으로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 치매예방사업 등 각 8개 부문을 평가하며, 성주군이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해 치매극복 선도단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는 '치매극복선도단체'를 활용한 지역맞춤 치매예방사업'이 선정됐다.

〈자료제공:성주군청〉

군 이장상록회장에 여성훈 선출

성주군은 군립 청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청사도서관 리모델링은 2019년도 생활SOC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이 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할

을 한 성실한 농부이기도 하다.

여성훈 신임 군 상록회장은 "성주군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온 마음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주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 이장상록회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부터 3년간 성주군 이장상록회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여성훈 금수면 이장상록회장을 선출했다.

여성훈 신임 군 상록회장은



지역 사랑 프로너

'나' 보다 '우리' 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힘내세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T. 635-3434



리빙



기타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곡로 86-8



리빙



현물후원 김장, 등유, 전기장판, 각종 난방용품

현금후원 대구은행 031-12-002229
대구은행 505-10-213822-8
국민은행 807101-01-391523
농 협 351-0262-5276-13
(예금주 :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일시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문의 053)625-9523, 9526

대덕구청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름의 가치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련 이야기 (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세요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 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월~수요일 상영시간

1회	19:00
2회	21:45

목~일요일 상영시간

1회	17:30
2회	20:20
3회	23:00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중국 네티즌이 반한 대구의 매력!

누적 조회 수 천만 회 이상, '근대로의 타임슬립 여행' 즐겨

국내 거주 중국인 인플루언서 8개 팀이 개인 SNS 채널(샤오흥수, 도우인, 쇼이쇼우, 웨이보 등)에 올린 대구관광 영상 콘텐츠가 12월 17일 기준, 누적 조회 수 1,293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는 중국 잠재관광객 대상 대구관광의 매력을 온택트(On-tact)로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거주 중국인 인플루언서(중국 내 팔로워 평균 65만 이상)들을 초청해 투어를 진행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은 대구약령

시와 레트로(Retro)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향촌동, 교동 일대를 둘러보고 한방의료체험, 근대문화체험 등 이색체험을 드러냈으며, 중국 네티즌들로부터도 기존 한국 여행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이디 'Jeinly'를 사용하는 중국 네티즌은 '레트로 컨셉의 대구관광이 너무 멋지다'라고 극찬했고, 아이디 'Susania'의 네티즌은 "대구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영상을 보니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갈진수 대구시 관광과장은 "코로나 종식 후 중국 잠재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대구만이 가진 매력을 알리기 위해 복고 트렌드에 맞는 근대문화체험과 대구약령시의 한방체험을 테마로



선정했고, 이를 인플루언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빅데이터가 대구 미래 관광정책 이끈다

빅데이터 분석 실증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정확한 관광객 수 예측 통한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 기대

대구시와 대구빅데이터 활용센터는 17일 오전 소프트웨어 융합 테크노즈 센터(DNEX)에서 '관광 및 생활 인구 분석 실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관광 및 생활인구 분석 실증사업'은 올해 6월부터 대

예를 들어 국적별·관광명소별·시간대별 관광행태 및 소비특성 분석을 통해 타겟팅 관광지 추천 및 관광상품 개

관광분석서비스는 통신데이터, 카드매출데이터 등을 활용해 관광지 별 관광객 수 및 소비패턴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과학적 관광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생활인구 분석서비스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지역의 주거(1), 직장(2), 방문인구(3) 등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와 맞춤형 서비스 협업을 통해 타겟팅 관광지 추천 및 관광상품 개

발에 이용되거나, 이동 패턴을 감안한 교통편의 및 주변 지역 관광정보(숙박, 맛집 등)의 적절한 제공으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활인구 분석서비스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별한 주거(1), 직장(2), 방문인구(3) 등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와 맞춤형 서비스 협업을 통해 타겟팅 관광지 추천 및 관광상품 개

발에 이용되거나, 이동 패턴을 감안한 교통편의 및 주변 지역 관광정보(숙박, 맛집 등)의 적절한 제공으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가전렌탈시대!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상담문의 053-551-2000

2020 대구시정 베스트 10

1위는 준비된 대구소방, 확진자 6,632명 이송

올 한해 대구시를 가장 빛낸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결과, 소방안전본부의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을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 시책이 선정되도록 했다.

2위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정책 추진으로 대구의 위상을 높인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가 선정됐다.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2일간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시기에 현장활동 대원 11,657명, 장비 17,406점의 동원으로 총이송환자 6,632명, 총 이동거리 319,914km라는 성과를 이뤄낸 대구시민의 참여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구시의 올해 '대구시정 베스트 10'은 부서별 신청사업 48건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위원회 심사

와 시민들이 참여한 온라인·길거

리투표 절수를 합산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민투표 결과를 최종결선에 70%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시책이 선정되도록 했다.

3위는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소상공인 둠고! 지역경제 살리는!

4위는 대구행복페어 3천억원 조기 소진 열풍

지역경제 회복탄력성 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5위는 코로나19 방역의 숨은 일꾼, 빅데이터로 위기 대응

1조원 규모 정부합동 대구모 프로젝트

6위는 대구시민이 함께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국내 로봇 대기업(현대, LG, 한화, 두산)이 함께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7위는 코로나19 세상이 왜 이래!

8위는 아! 대구(DAEGU)황! 희망일자리! 고마워!

9위는 대구시민이 푸어야! 전국 최초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운영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순위	시책명	소관부서
1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을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	소방안전본부
2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	감영병관리과
3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인사혁신과
4	소상공인 둠고! 지역경제 살리는!	경제정책과
5	대구행복페어 3천억원 조기 소진 열풍	안전정책과
6	지역경제 회복탄력성 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데이터통계당국
7	1조원 규모 정부합동 대구모 프로젝트	산단진흥과
8	국내 로봇 대기업(현대, LG, 한화, 두산)이 함께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계로봇과
9	코로나19 세상이 왜 이래!	일자리노동정책과
10	아! 대구(DAEGU)황! 희망일자리! 고마워!	희망복지과

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온라인 투표 문장장 등에서 길거리투표로 실시와 12월 9일과 10일 유동인구가 많았으며 시민 8,778명이 참여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흠뻑 주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풍이다. 다른 식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통풍은 일조량, 급수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낮엔 꼭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 두도록 하자. 그래야 각자별 레나 용에 같은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



키우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가능한 베란다 토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바깥활동이 어렵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한다면 초록초록하고 영양가도 가득한 시금치 키우는 재미에 빠져보면 어떨까?

서순옥 객원기자

겨울 베란다텃밭의 주인공 '시금치'

상추와 쑥갓 등 온갖 쌈채를 보통 2달이 걸린다. 기자도 지난 10월 17일 파종을 해서 12월 20일 수확을 했으니 딱 2달이 걸린 셈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카드 이용실적, 통신데이터 등 사용자 데이터 분석으로 대구의 숨겨진 관광지원을

발굴하고 맞춤형 코스 추천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해 행정 혁신을 기우기 딱 좋은 채소이다.

시금치는 저온에서도 잘 발아하고 추울수록 오히려 단맛이 강해져 겨울철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채소이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해가 잘

드는 낭향 베란다 조건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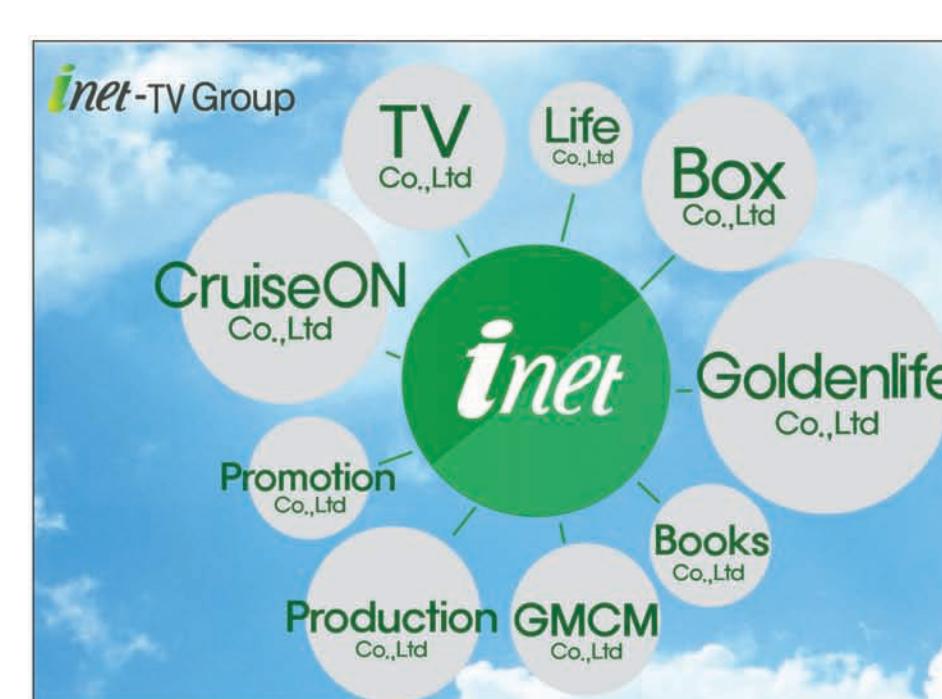
다는 아무래도 노지보다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웃자람이 있을 수 있는데 웃자람은 어린 쪽의 뿌리부분을 흙으로 덮어주는 걸 복토라고 한다.

복토를 해주면 뿌리내림이 좋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도록 하자. 흙은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면 되는데 토양의 PH는 7~8 정도가 알맞다. 베란

으니 걸들이 말랐을 때 물을

inet-TV는 푸른방송과 함께합니다.

국민형 63-1 디지털 III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147. 월암동 선돌공원, 대천동 한샘공원

1) 프롤로그

2018년 8월 3일자 푸른신문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브리튼 스톤헨지, 진천동 스톤헨지」 필자는 이 글에서 진천동 입석[사적 제411호]을 세계적인 거석문화재로 할 수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비교해 보았다. 이는 규모나 위상이 아니라 동서양을 불문하고 입석[立石·선돌]이 지난 문화재적 가치나 의의를 비교해 본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 고장 달서구는 대구시 8개 구·군중 선사시대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이다. 이에 달서구는 '선사시대로(路)'라는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 의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사시대로 탐방코스 중 한 곳이기도 한 대천동 한샘공원과 월암동 선돌공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선사시대로(路)

역사공부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록수단인 문자 유무에 따라 문자 발상 이전을 선사(先史)시대, 이후를 역사(歷史)시대라 한다. 책으로 대표되는 문자의 발전은 인류발전과 퀘를 같이 한다. 만약 인류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조들은 자신들이 체득한 소중한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후손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매번 선조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되풀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비효율적인 노하우 전수방식은 사라졌다. 문자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노하우 터득을 위해 삶을 매번 '처음'으로 리셋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알고 지내던 방송국 PD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인돌과 선돌을 다른 적이 있었는데 구성과 편집에서 애를 먹었어요. 암만 봐도 그냥 둘다 일 뿐인데..." 당연하다. 수천 년 전의 유물인데다 관련 문자나 기록 없이 둘만 놓고 그려내기 있으니 말이다. 선사시대 유물·유적 연구는 삼국·고려·조선과 같은 역사시대 유물·유적과는 접근방법이 다르다. 오직 눈앞에 남아 있는 돌·흙·토기·뼛조각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접근법에 훈련된 이들이 바로 고고학전공자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돌이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선사시대 유적공원, 선돌공원

재개발이 한창인 월암동(月巖洞). 조선시대 때 월배 지역은 지금의 지하철1호선을 기준으로 성서 쪽은 조암방(한때 영암면이라 불린 적도 있

송 은 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고총아파트 사이 한샘공원 회화나무



스톤헨지로 연상케 하는 선돌공원 야외 전시장

대천동은 그 역사가 약 400년이며 마을 남쪽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큰 샘[한샘]이 있어 한샘 혹은 대천(大泉)이라 불렸다. 한 때 100여 가구에 400여 명이 거주했으나 1970년대 근대화로 마을 위쪽 농토가 공장지대와 접한지 거리으로 변했고, 2006년에는 마을까지 사라져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천마을 유래를 둘째 마을 수호신 회화나무 아래에 세우니 후세들도 이 터전이 주는 큰 뜻과 조상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선사시대+역사시대 유적공원, 한샘공원

선돌공원 인근 대천동에는 한샘공원이 있다. 한샘공원은 그 느낌이 선돌공원과는 사뭇 다르다. 선돌공원이 고총아파트단지를 피해 외곽에 있다면 한샘공원은 고총아파트단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한샘공원 역시 주요 테마는 '선사시대로'다.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 선돌공원이 '선사시대로'라면 한샘공원은 '역사시대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은 문자 유무에 달렸다. 선돌공원에 전시된 고인돌·선돌·집자리는 문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물·유적이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돌과 흙만으로 선사시대 문화를 유추하고 선사시대인들과 소통한다. 하지만 한샘공원은 좀 다르다. 필자가 한샘공원에서 주목하는 것은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아니라, 공원 한 편에 있는 옛 한샘마을을 살피는 수준이다. 350년 회화나무 두 그루다.

회화나무 앞쪽에는 이곳이 옛 한샘마을터였음을 알리는 한샘(대전동)유허비가 있다. 지금의 대전동 일대는 이 회화나무와 곁에 있는 팽나무·느티나무 노거수를 제외하고는 옛 모습을 전히 찾을 수가 없다. 400년 내력을 지닌 대전동이 불과 십 수 년 만에 천지개벽, 삼전벽해를 한 것. 하지만 대전동의 과거는 선사가 아닌 역사다. 마을의 내력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샘(대전동)유허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목요단상(木曜斷想)

소크라테스

지난 추석부터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노래 '테스형'은 힘든 세상을 한탄하는 듯 하지만 삶의 포기가 아니라 극복을 노래하고 있고 삶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면서, 도덕적·양심적인 행동,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러나 테스형의 노랫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은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를,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소크라테스는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농담처럼 '니 꼬리지를 알아라'는 말을 자주 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데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열기 때문이다. 즉 '꼬리지를 알아라' 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생긴다.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불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신이 잘 나서 그리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다른 사람만 헛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교수신문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새해는 부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해가 되면 좋겠다.

변점식 기자

국민연금 Q&A

Q. 남부예외 기간 동안 남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남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남부예외 기간 동안 남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남부를 면제하여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남부예외 기간 중 남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남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남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남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남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남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남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로 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 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남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서류: 반월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예금번호 제시로 가능), 도장(생명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수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길을 묻고 담하라 배우자 선택



구용 회 건강대학 교수

좋은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끓까지가 써워지지 않는다면 결혼으로 골인해야 한다. 도파민 분비에서 오는 환

상으로 인한 각각 현상 때문에 상대방이 마냥 좋다는 그 마음은 당신의 진실된 마음이 아닐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선택이 가치관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는 개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한다.

배우자 선택이 가치관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는 개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 당사자의 원하는 바를 서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결혼은 시집을 가지고 장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외에도 두 가문의 상호

선택도 필요하다. 행복한 결혼 생활 들어선 이 지역 아파트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의 첫 단추 퀘기는 상호 어울리는 조건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

입력을 했다. 잠시후 컴퓨터에서 답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해답란에 답하는 설문지가 나왔다.

· 당신은 키가 큅니까?

·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 미남에 머리가 좋습니까?

· 재산이 많습니까?

그 남자는 한참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아니오'라고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나온 답은 "꼴 깨하지 마세요!"였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족해야 가능한 것이다.

달성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확대 시행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도 지정된 소규모학교로 전, 입학을 허용하는 2021학년도에 반송초 및 동곡초 활성화를 위해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을 확대·시행한다.

달성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에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제도를 시행해 유가초·비슬초에서 현풍초로, 다사초·세천초에서 하빈초로 입(전)

학이 가능하게 했고, 현풍초와 하빈초를 합쳐 약 60여 명의 학생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학년도부터는 다사초·대실초 통학구역 내 학생들은 동곡초로, 강림초 통학구역 내 학생들은 반송초로 주소지 이전 없이 입(전) 학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인근 아파트 건립으로 과밀이 예상되는 다사초 학생들은 동곡초와 하빈초를 선택해 이동이 가능하다.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대상 소규모 학교(현풍초, 하빈초, 동곡초, 반송초)에 입학하려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뒤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gds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철 교육장은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며, 작은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



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의 매력적 교육특화사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교육지원청〉

로 스스로 고르게 한다면 아이가 된다. 나아가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는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 읽어줌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읽을 책을 골라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아이가 읽을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이 글보다 많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잡지라도 개인적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나 성향대

이원욱 객원기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아이가 원래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해가 갈수록 안 읽는 것 같아요."

"책은 읽는데 보면 다 만화 책이에요"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위와 같은 하소연을 많이 한다. 대개의 아이들은 책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지만 가끔은 놀이 유독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가 취미인 아이들도 더러 있으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대화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만큼 수준 차이도 크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거의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책 읽기는 왜 중요

할까? 책은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느껴보고 미리 알게 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길러진다. 또한 본인과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작가부터 각양각색의 성격을 지닌 등장 인물까지 만나면서 세상에는 사람 수만명이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에게 책을 직접 읽어주는 것이다. 영유아기 때 읽어주는 동화책과는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는 경험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쌓아주는 동시에 책의 내용과 관련한 이야



대구왕선초등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L.A.M.P 놀이터 인성교육으로 민주시민의 빛(On)

대구왕선초등학교(교장 한승희)는 '202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L.A.M.P 놀이터에서 민주시민의 빛(On) 밝히기'를 주제로 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구왕선초등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L(인문학), A(예술), M(감성), P(신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왕선초등학교〉

'달서구의 옛 이야기' 출간

학산초 3학년 책쓰기 동아리, '석샘이야기' 등 7권

온책읽기 미래학교인 대구 학산초등학교(교장 전구학)는 11일 도서관에서 3학년 책쓰기 동아리의 달서구 옛 이야기 출간간식을 개최했다.

학산초 3학년 2반 책쓰기 동아리(지도교사 안효정) 학생들은 사회교과 수업을 통해 우리 고장 달서구의 옛이야기를 조사하고 직접 삽화를 그

려 '석샘이야기', '황씨바위 이야기', '곶감샘 이야기', '청룡못 이야기' 등 총 7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번 출간기념식은 작가와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책을 낭독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소개하였으며 학생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황씨바

합해서 만들었어요"라고 대답 하여 독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독자 김종빈 학생(3-1)은 "2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책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친구들의 글과 그림이 책으로 출간되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라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진행한 3학년 2반 담임 안효정 교사는 "책쓰기 활동을 통해 달서구의 옛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또한 자신

의 이름으로 펴낸 책을 보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동아리 운영의 보람을 느낀다"라며 출간된 7권의 책을 학산초 도서관의 대출용 도서로 기증하기로 했다.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의 학습내용으로 학산초 3학년 학생들은 학습내용으로 학산초 3학년 학생들은 달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달서구의 옛이야기 책을 펴내게 되었다. 〈자료제공:학산초등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우리 주변에는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만약 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학업 중단은 학업에서 손을 떼는 것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범죄나 비행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은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니라 심리, 학업, 가족관계 등 다수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담임교사 및 교육청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업

중단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다양한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불안이 원인이라면 Wee센터와 같은 전 기간 동안 상담이나 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해 신종한 판단을 돋기 위해 도입되었 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 숙려제와 같은 맥락의 제도이다.

물론 학업중단 숙려제가 아

의 이유를 모른다거나 학교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학생, 교 우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등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원욱 객원기자



대구제일여성 공기업 취업신화를 이어간다

신용보증기금에 대구·경북 유일 합격자 배출
한국감정원의 전국 TOP2 선발 관문 뚫어

금융·통신 분야 특성화고인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철우)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채용규모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감정원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로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1명의 공기업 합격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규모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채용일정이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되어 상당수 기업의 채용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유난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꿈의 기업에 합격하면서 '공기업 취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 특성과 개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도 등 차별화된 취업지원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당연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심어준 것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고졸 채용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면접의 기회가 있어도 그 관문을 넘기기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인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비수도권 4명 중 1인으로



원쪽부터 한국감정원 김경진, 신용보증기금 김재은 학생
최종합격한 김재은 학생은 "1 후 자기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학년 때 졸업생 멘토링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입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분이 좋다. 입사

〈자료제공: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독서골든벨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요

화원꽃뜰유치원, 독서골든벨 개최

화원꽃뜰유치원(원장 정희)은 14~16일까지 독서골든벨 대회를 진행, 유아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아들은 교실에서 책을 읽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책꽂이

에서 직접 책을 찾아 친구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등 연습시간을 가졌다. 그 후 14일은 만 5세, 15일은 만 4세, 16일은 만 3세로 나누어 독서골든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타이밍 끝날 때마다

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유익했으며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질문해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만 4세 교사는 "유아들이 독서골든벨 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더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화원꽃뜰유치원〉



‘대구의 문화재 한 자리에서’

대구교육박물관 기획전시 ‘대구문화재 돌아보기’ 지역의 문화재 통해 역사와 문화 이해하기

대구교육박물관(관장 김정학)은 18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지역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 문화재 둘러보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소재 지정문화재 및 이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간 ‘기록하다’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기록’과 관련된 문화재를 소개한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태을산분정아국주군 문야도(대구광역시유형문화재 제66호)’ 등 조선시대 지역을 위한 전문 기록과 역사와 개인의 기록자료, 그리고 비문을 통해 지금은 사라진 대구읍성의 뒷 이야기를 4개의 비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싸웠던 사람 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함께 살펴본다.

세 번째 공간 ‘잇다’는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으로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구성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김용운 외 5인의 기능장의 작품을 전시하고 연희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널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기하고자 하였다.

김정학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대구라는 공간을 지켜온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살펴

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

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간 ‘기록하다’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활동한 의병과 승병의 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며 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

※ 둘러보기란 ‘살살이 둘러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자료제공:대구교육박물관〉

대구시립극단 비대면 연극 꾸러미 선물

연극 ‘십이야’, 시민들을 위한 ‘연극학교’ 온라인으로 TBC와 공동제작 스탠딩 드라마 ‘The Play’ 방송…공모 당선작 오디오북 제작

대구시립극단(예술감독 정철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내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연극 꾸러미를 선보인다.

최근 제50회 정기공연 세의 스피어 연극 ‘십이야(원제 _Twelfth Night)’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극학교’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또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TBC와 함께 새롭게 기획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를 새롭게 선보이고 단원창작희곡집을 발간한다.

올해 첫 정기공연 세의스피어 연극 ‘십이야’ 온라인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및 대구시립극단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29~31일 3일간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시민들을 위한 ‘연극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이 직접 배우가 되어보는 콘트롤판표회가 사실상 연극학교의 주요 포인트였기에 수강생들에겐 상당히 아쉽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각 퍼트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무대 뒤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며 아쉬움을 달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영상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장사들이 참여한 대구시립극단 공연 하이라이트 장면을 함께 보여준다.

종

네

경

좌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연극 ‘십이야’

제작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실화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희곡은 예술성, 독창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당선작은 현수막 비행기(작: 김도영/희곡), 당시의 베틀린(작: 조은정/희곡), 자취방 손님은, 어머니(작: 최민주/희곡), 깨빠깜빠(작: 서수아/희곡), 거울에서 피어난 사랑(작: 허필은/사연), 친구 같은 마스크(작: 김희아/사연)이다.

당선작은 낭독극과 매체가 만나 새로운 형식으로 탄생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로 대구시립극단과 TBC 공동 제작으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는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은 힘으로 제작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대구시립극단이



건강

대형 폐기물, 이제 간편히 버리세요~

스티커 필요 없이 간편한 앱으로 처리 가능해져

부피가 큰 폐기물을 버리려면 스티커를 따로 구입해 부착한 뒤 밖에 내놓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폐기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스티커 가격도 다양해 무엇을 붙여야 할지부터가 사실 난관이었다. 게다가 스티커 구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판매소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결제 후 출력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지어 스티커를 붙여놓았을 때도 불구하고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떼어가거나 비에 젖어 훼손되어 다시 구입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에서는 '대형폐기물 간편 처리를 위한 모바일 앱'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로, 서비스를 도입한 타 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여기로'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24시간 언제든지 폐기물 처리 접수가 가능하다.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일회성 사용이 많은 접을 고려해 로그인 없이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사용방법 또한 간단하다.

세부적인 사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리 다운로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여기로'에 접속한다. 그 후 폐기물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수수료 결제창이 나온다. 결제 후 안내받은 배출 번호를 폐기물에 적어 지정한 위치로 내놓기만 하면 끝. 이



후에는 구청에서 나와 배출 번호를 확인 후 수거를 해가고 이용자는 수거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될 대형 폐기물 간편 처리 시스템은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 부착해야 하는 주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티커 제작 예산이나 판매 인력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즘, 비대면 접수를 통해 공무원부터 주민 까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청소과 재활용팀 ☎ 667-2725 이원욱 객원기자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겨울철 낙상 주의

날이 추워지면 낙상환자들이 많아진다.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면서 그늘진 곳에는 얼어붙은 곳이 생기고 있어 빙판길 낙상사고가 늘어난다. 겨울이 되면 추위에 몸이 움츠려들고 관절이 뻣뻣해져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높다. 빙판길 뿐 아니라 침대나 화장실에서도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또는 척추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보행제한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시간 누워 치료를 받게 되면서 뇌졸중, 혈전, 육창, 폐렴 등 합병증이 일어나기 쉽고 또한 회복된 후에도 보행 제한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 관절의 기동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균형운동을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면 좋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스퀴트), 제자리 걷기(가능한 무릎을 90°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좋다), 발뒤꿈치 들고 베티기, 한발 들고 한발로 서기,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힙브리지), 누워서 허리를 고정하고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어 올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운동을 10~30초간 좌우 반복해준다.

또한 실내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선이나 옷 등을 정리해야 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깔고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평소 어지러움이 있다면 복용하는 약물이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 복약 상담을 하고 어지러움을 치료해야 한다. 안과검사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고 과음을 피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력약화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낙상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약 27만 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5.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에서 30%는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나 폐경기 여성의 경우 뼈의 강도가 약해져 낙상이 골절이나 척추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 053-564-0401

업그레이드된 걷기 해보세요

운동효과는 높이고 부상 위험은 줄인 '노르딕 워킹'

걷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이 한발 내딛기 위해서는 전신 근육을 움직여야만 가능하므로 운동효과도 크다. 신체 나이에 따라 일맞은 걷기도 다른데 특히 노년층에 추천할 만한 걷기가 바로 '노르딕 워킹'이다. 팬단드에서 처음 시작된 노르딕 워킹은 원래 북유럽 스키 선수들이 모여 눈이 없는 때에도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생각하다 고안한 운동으로 이름에도 그래서 북유럽 지역을 일컫는 노르딕이 붙여졌다.

일반적인 걷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인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동효과를 측정했을 때, 노르딕 워킹의 경우 일반적인 걷기보다 약 1.4배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 비결은 바로 전용 스티에 있다. 스티를 다리와 함께 앞뒤로 계속 움직여 걷기 때문에 상체도 운동이 되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양손에 전용 스티를 잡고 땅을 짚기 때문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 무릎이 약하여 걷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좋다.

다른 운동도 그렇듯이 노르딕 워킹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 이를 맞춰 운동할 때 부상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먼저 스티과 뒤쪽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뒤쪽에 있는 스티의 각도를 조절하는데 이때 바다과의 각도는 60도로 유지시키는 게 좋다. 또한 척추를 곧게 세우고 팔은 최대한 길게 뻗어 팔꿈치가 구부러짐이 없는 자세가 일맞으며 스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명치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실내 운동이 부담스러운 요즘, 노르딕 워킹은 길과 같은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할 수 있어서 동시에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몇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도 걸으면서 나오는 엔드로핀 호르몬 덤분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르딕 워킹이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원욱 객원기자

